

번역문

독일연방대통령청

인터넷 연설문:
www.bundespraesident.de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연방대통령
아산정책연구원 대담 연설문
2018 년 2 월 9 일
서울/대한민국

토론회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이곳에 오늘 오게 되어 특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한국 방문은 매우 각별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평창에서 제 23 회 동계올림픽의 막이 성대히 오르는 날입니다. 올림픽 경기는 고대 그리스 전통에 따라 늘 올림픽 평화 정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이곳 한반도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이 고조된 긴장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난 지금은 올림픽 평화 정신을 떠올리기에 매우 적절한 때입니다. 올림픽 평화는 비록 그것이 직접적인 상황을 바꾸기 어렵더라도 - 적어도 몇 주 동안만이라도 - 시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한 차례 올림픽 평화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미 1988 년에도 한국은 전 세계 스포츠인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서울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당시 아직 분단국이었던 제 고향 독일에서는 폴란드의 자유노조(솔리다르노시치), 당시 아직 건재했던 소련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가 큰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동독인들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개혁과 변화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당시 서독 지역에서는 그 당시만해도 분단의 조속한 극복을 예감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른 대한민국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와 권위적 통치를 극복하고 놀라운 정도의 자유와 부를 이룩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자력으로 민주주의를 일구었고 오늘날까지 선도적인 산업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 세대는 여전히 배고픔과 피난을 잘 기억하는 데에도 말입니다. 한국의 성공사례는 성공한 발전, 민주적 발전의 교과서적인 귀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민은 마땅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의 고향에서는 대다수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88년 서울과 캘거리 올림픽 때만 해도 동서독 선수단이 따로 참가했었는데, 1992년에는 이미 단일팀으로 바르셀로나와 알베르빌에 참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동독주민들이 평화 혁명을 통해 지금으로서는 당연시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은 양도할 수 없는 자유권, 민주주의, 그리고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회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위대의 지치지 않는 저항에 굴복하여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그것도 평화적으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11개월 뒤에 독일 통일은 이미 정치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차대전의 승전국들이 독일에 새로운 신뢰를 보내주었다는 사실도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은 유럽의 평화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을 가로지르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했던 장벽은 이 도시를 28여년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0,316일 동안 갈라놓았습니다. 가족들을 갈라놓고 동서독에 살고 있는 각 개인의 역사에 깊이 각인된 10,000일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죽음의 국경선과 자동 발사 장치가 없는 독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장벽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미 일상이었습니다.

장벽이 붕괴되고 이제 28년이 흘렀습니다. 나흘 전인 2월 5일부터 베를린 장벽은 분단의 현실이었던 세월보다 사라진 세월이 더 길어졌습니다. 독일인들은 장벽이 붕괴되자 우선 기뻐했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라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 힘든 작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동독인들은 깊은 단절을 경험했고, 물론 여러 가지 새로운 자유도 얻었으며, 또 특히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결핍과 실망을 겪기도 했습니다. 독일국민에게 통일은 역사의 종결이 아니라 새롭고, 격양되고, 또 대다수의 독일인에게는 매우 성공적인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장벽 붕괴 전 10,000 일과, 붕괴 후 10,000 일에 대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역사는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을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순진하거나 현실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희망 안에는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살고 있습니다. 장벽 붕괴 전후로 변화에 대한 용기를 증명해 보인 우리 동독 주민들이 바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단의 숙명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한반도, 특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른 차원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70 년 이상 분단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핵 위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현존해 있는 위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대화의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압박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제가 8 년간 참여했던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하지만 긴장완화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얻으려면 대화만이 그 방법이라는 것 역시 진실입니다. 대화를 통해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과 제안들을 내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희망과 용기, 이 두 가지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동아시아 상황은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긴장이 고조되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입니다. 과거의 확실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독일이 자유무역의 미래에 대해 미국과 벌이고 있는 새로운 논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강력하게 새로 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부와 안보를 약속하지만 여기에는 자유와 민주적 자기결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점점 더 자의식을 갖고 행동하며 국제사회, 특히 대한민국을 지역 안보구조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지난 몇 년 간 - 저희 독일에서 관찰하기에도 - 근본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에는 분명히 공통점들이 있으며 저는 미래에도 이러한 공통점을 계속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가꾸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장은 통일은 물론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대화에 대한 생각마저도 현재로서는 몽상으로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역사의 원칙적인 개방성,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를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곳 한국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는 더더욱 이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한국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는 이 지역의 외교적 안정이 보장될 때에만 현실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2014 년 방한했을 때 통일의 외교정책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단 하나의 메시지만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가장 크고 가장 정직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한국 국민들 스스로일 것이며, 만약 희망에 장소가 필요하다면 그곳은 바로 여기 한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보다 더 적합한 날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선수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개막식 공동 입장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